

狩獵人的 經驗 水準과 個人的 特性이 狩獵滿足에 미치는 影響¹

申 侺 燮²

The Influence of Past Experienc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Hunters' Satisfaction¹

Won Sop Shin²

요 약

본 연구는 多面 滿足 尺度 (multiple-satisfaction scale)를 이용하여 狩獵人的 滿足 要因을 조사하고 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또한 수렵인의 만족 요인과 수렵 經驗 水準, 그리고 수렵인의 個人的 特性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1000명의 狩獵人을 대상으로 실시한 郵便 설문에 의해 수집되었다. 要因分析 결과 수렵 만족에 影響을 주는 요인은 '捕獲', '裝備', '自然', '사냥 技術', '脫皮', 그리고 '社會的 만남' 등 6 가지로 분석되었다.

추출된 6개의 要因과 수렵인의 經驗 水準 변수 즉, 經歷, 狩獵 參與 日數, 그리고 자신이 評價한 수렵 技術 수준과의 相關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들 變數와 몇 가지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發見되었다. 그러나 각 요인들과 수렵인의 個人的 特性과는, 나이와 수렵 技術을 除外하고 아무런 差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ABSTRACT

A multiple-satisfaction approach was used to determine hunting satisfaction. A sample of 1000 hunters was surveyed via mail questionnair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evealed six dimensions of hunting satisfaction: harvest, equipment, nature, skill, escapism, and social contact. Among these factors, items related nature were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to their hunting satisfaction.

Correlations between specialization variables (past experience, days participated in hunting, and perceived level of hunting skill) and each factor derived were examined.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any differences in hunting satisfaction due to personal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and place of resid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no differences, except age and hunting skill, were found between the two variables.

Key words : multiple-satisfaction, hunting, specialization, personal variables

서 론

1982년부터 시행된 우리 나라의 순환 수렵장은 이용객의 수뿐만 아니라 사용료 수입액에서도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Table 1). 수렵

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와 관심은 산림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인 야생동물의 경제적 자원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야외 휴양 활동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¹ 接受 1999年 4月 20日 Received on April 20, 1999.

²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School of Forest Resources, Chungbuk Nat'l Univ., Cheongju 361-763, Korea.

Table 1. Number of Hunters and Income from Using Fee by Year (Forest Administration, 1999)

Year	Number of Hunters	Income (million Won)
1990	6,581	2,277
1991	8,161	2,795
1992	8,588	3,111
1993	11,852	4,465
1994	11,558	4,650
1995	13,458	5,660
1996	16,961	6,322
1997	15,920	6,676

휴양이란 '한 개인이 단지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관련된 것이며 (Drive 와 Tocher, 1970), 따라서 모든 휴양자원 관리자는 이용객의 경험과 질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리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렵관리 역시도 수렵인에게 질 좋은 휴양 기회의 제공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Vaske 등, 1986).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수렵인의 수렵참여 동기와 수렵 경험의 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면서 그에 맞추어 수렵 및 수렵동물 관리 목표와 이론이 바뀌어져 왔다 (Hendee, 1974). 일반적으로 휴양 경험은 여러 가지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이 휴양 경험은 만족에 관여하기 때문에 (Hazel 등, 1990), 최근의 관리 이론은 질 좋은 수렵 경험 산출을 위해 multiple-satisfaction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신원섭, 1995; Decker 등, 1980; Hammitt 등, 1990; Hendee, 1974; Vaske 등, 1986).

전통적으로 포획량이 수렵 만족에 기인하는 원칙적인 요인이라는 통념이 팽배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포획량이 기초가 된 수렵만족 개념은 '수렵은 다양한 개인의 만족과 편익을 충족시키며 포획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오직 한 가지 요인일 뿐 (Crissey, 1971)'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오늘날에는 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포획량을 기초로 한 만족 개념은 수렵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몇 가지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포획량이 기초가 되는 만족 개념은 제한된 야생 동물 개체수 때문에 포획량이 제한돼 있다는 것과, 이 개념은 만족에 소수의 노련한 기술을 가진 수렵인에게만 초점이 맞

추어진다는 것이다 (Hendee, 1974).

포획량 위주의 만족개념이 이러한 여러 제약과 단점에 의해 비판을 받으며 오늘날 많은 연구들은 수렵 만족은 여러 가지 사회적, 자연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는 다면적 만족 (multiple-satisfaction)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신원섭, 1995; Decker 등, 1980; Hammitt 등, 1990; Hendee, 1974; Vaske 등, 1986). 수렵 만족에 영향을 주는 측면들에 관해 많은 연구자들은 수렵경험의 질을 제고시키고 또 경험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의 규명에 관심을 두고 조사하였다. Potter 등 (1973)은 미국 워싱턴 주의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11개의 수렵만족 측면이 수렵인의 분류족, 수렵동물의 종류 등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모든 수렵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만족 측면은 자연, 일상의 탈피, 동반자, 포획 등이었다. Hautaluoma와 Brown (1979)는 앞에서 언급한 Potter 등 (1973)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슴 수렵인들의 만족에 관여하는 8가지의 요인을 군집 분석에 의해 추출하였는데 이들은 자연, 기술, 포획, 장비, 다른 수렵인과의 만남, 초보 기술의 사냥, 긴장의 해소, 그리고 명중률 등이었다. 이 8가지의 요인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초로 한 4부류의 수렵집단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연, 기술, 포획, 장비, 그리고 다른 수렵인과의 만남에 관련된 요인은 모든 수렵인 집단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Decker 등 (1980)은 야생동물 및 수렵에 관련된 휴양활동에서 참여자의 전문화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참여자가 수렵에 관련된 활동을 참가할 때 초기에는 '성취' 즉 포획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가 전문화 수준이 향상될수록 '감상과 음미'로 변화한다고 한다.

Bryan (1977) 또한 야생동물 관련 휴양활동의 참여에서 Decker 등 (1980)과 같은 전문화 과정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야생조류 관찰 활동에서 전문화 과정의 예를 들면서 그 수준에 따라 초보자, 중급, 그리고 고급 전문성을 가진 휴양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Decker 등 (1980)은 또한 전문화 수준은 휴양활동의 참여 목표와 경험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행동적 지표임을 주장하면서, 전문화 과정을 통해 휴양객의 행동은 '성취' 지향에서 '감상과 음

미' 지향의 행동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수렵 만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은 수렵경험의 각 측면들이 전체적인 만족에 독단적 또는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려 노력하였고 이 연구들의 공통적 결론은 다면적 만족 개념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Vaske 등, 1986). 수렵 만족은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만족에 관여하는 측면들이 수렵인의 특성, 수렵장의 선택, 수렵인의 기술수준 및 경력, 그리고 수렵에 사용하는 장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Hazel 등, 1990).

본 연구의 첫째 목표는 수렵관리의 목표인 수렵인의 만족을 조사하고, 보다 질 좋은 수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렵관리 방안 수립에 근거가 되는 수렵 만족과 수렵경력 및 개인적인 특성과 상관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또 한가지 목표는 Campbell 등 (1976)이 제시한 만족은 개인의 과거 경험에 의해 깊게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과 과거 야외휴양 관련 연구들이 (Lucas, 1980; Shin and Jaakson, 1997; Watson 등, 1991) 보고한 휴양 이용 빈도와 패턴이 휴양객의 개인적인 특성들 (즉, 성별, 나이, 교육수준, 거주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우리 나라 수렵인의 만족도에도 작용하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알맞은 수렵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을 위해 우편 설문 조사법이 이용되었다. 1999년 3월 수렵기간이 끝난 바로 직후 대한 수렵협회 회원으로 수렵 면허 (엽총 또는 공기총)를 소지하고 있으며 1998~1999년 강원도 순환 수렵장의 入獵 사용료를 낸 3천명의 수렵인 중 1천명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1천명의 수렵인에게 조사의 취지와 협조를 부탁하는 편지와 반송용 우표가 붙은 봉투, 그리고 4쪽 분량의 설문지가 발송되었다. 설문지 발송 15일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수렵인은 제외한 모든 선정된 수렵인에게 응답을 협조하는 엽서를 발송하였다.

전체 1천부의 설문지 중 420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중 86개의 설문지가 주소 불명 또는

다른 이유로 반송되었다. 따라서 반송을 제외하고 계산된 최종 응답률은 37%이다. 이 응답률은 과거 우리 나라 수렵인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이용한 연구 (최유환과 김성일, 1995)의 응답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 다면 만족 척도 (Multiple-Satisfaction Scale)

본 연구에서 수렵인들의 수렵 경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Potter 등 (1973)이 개발한 Multiple Hunting Satisfaction Scale을 기초로 한 변형된 한국형 척도가 쓰여졌다. 변형된 척도는 우선 원래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10명의 임학 전공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되고 100명의 산림 과학 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pre-test를 거친 후 확정되었다. 확정된 척도는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각 항목마다 "매우 동의한다"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까지 5점 척도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2). 이 최종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73이었다.

3. 경험 수준

수렵인의 경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이용되었다.

- 1) 과거의 수렵 경력 : 수렵에 참여한 년 수
- 2) 지난 수렵기간 중 수렵에 참여한 일 수
- 3) 자기 평가에 의한 수렵 기술 수준

위의 변수들은 과거의 연구들에 의하여 (Hammit 등, 1986; Watson과 Niccolucci, 1991) 경험 수준과 전문성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어 왔으며 본 연구의 목적 상 수렵인들의 경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결 과

1. 수렵인과 수렵 참여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50.48세 (S.D.=9.36)이었으며 모두 남성이었다. 응답자의 반 이상은 (52.1%) 고졸 학력을 소유하였고 22.0%의 응답자는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 분포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51.5%), 농림어업 (18.7%), 회사원 (8.9%), 전문직 (6.9%) 등의 순이었다.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응답 수렵인의 71.2%가 도

청 소재지 이상의 도시 거주자이었다.

수렵 참여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수렵인은 과거 수렵에 참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12년의 경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수렵기간 중 (1998년 11월-1999년 2월) 평균 30일을 수렵에 참여했으며 수렵 시 동반자는 수렵 동호인 (52.7%), 친구 (25.6%)순 이었다. 수렵인들은 대부분은 (90.2%) 엽총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선호하는 수렵 동물은 꿩, 멧돼지 등의 순 이었다.

2. 만족 요인

전반적으로 수렵인들의 만족 척도를 분석해 볼 때, 척도의 대부분 항목이 그들의 수렵 경험과 만족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는 수렵 만족 척도의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상대적 백분율과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항목 중 '산과 들에서 풍기는 냄새', '자연과 가까이 있다는 것', '야외에 나간다는 것' 등의 자연과 관련된 항목들이 수렵 만족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총을 수집하는 것', '최고의 장비를 갖추는 것' 등과 같은 장비에 관련된 항목들은 수렵 만족에 가장 낮게 공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척도가 지니고 있는 만족의 인자를 조사하기 위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실시하였다. Eigen 값이 1또는 그 이상 되는 인자를 추출한 결과 6개의 인자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 인자들은 전체 variance의 58.1%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만족 척도의 각 항목이 도출된 인자에

Table 2. Mean and Percent Response to "How much did each of the following add to or take away from your hunting satisfaction?"

Items	Mean ^a	Percent Response				
		Added a Lot	Added Some	Neither	Detracted ed Some	Detracted a Lot
1. Being close to nature	3.95	25	52	20	2	2
2. Just being outside	3.92	16	55	26	1	2
3. The smell and sound of the woods and field	4.20	35	52	13	0	0
4. Getting away from civilization	3.72	17	49	26	4	4
5. At least seeing some wildlife	3.85	19	54	22	3	2
6. Getting away from everyday problems	3.90	31	42	19	3	5
7. Getting away from home	2.55	3	15	38	23	21
8. Seeing very few others	2.72	4	22	34	20	19
9. Being with my hunting companions	3.78	16	55	22	5	2
10. Seeing game fall as I shoot	3.72	21	41	27	4	7
11. Making a difficult shot	3.86	24	48	21	4	3
12. Outsmarting game	3.58	24	34	24	12	6
13. Stalking game	2.60	9	16	25	24	25
14. Being thought of as a skilled hunter	3.18	12	30	34	12	12
15. Bagging more game than hunters in other parties	2.26	2	9	33	26	30
16. Teaching someone else the skill of hunting	2.74	19	21	31	24	5
17. Showing game I bagged to family and friends	2.39	3	12	33	25	27
18. Bagging a very large animal or bird	3.31	10	38	33	12	7
19. Bring game home	2.76	3	15	50	20	12
20. Saving hides, horns, or feathers	1.64	1	3	12	29	56
21. Having the best of hunting equipment	1.98	2	7	22	23	45
22. Being a well-equipped hunter	2.16	2	9	27	26	36
23. Collecting guns	1.99	3	8	20	25	45
24. Cleaning and maintaining hunting equipment	3.69	23	41	23	8	5
25. Comparing my equipment with other hunters	2.18	2	5	34	29	30
26. Seeing hunters from other parties	3.80	19	51	24	4	3

Note : N = 303

^a Rated on a scale of 1 - 5

Table 3. Rotated Component Loadings, and Component Reliability

Items	Factors ^a					
	1	2	3	4	5	6
1. Being close to nature	.17	.08	.62	.02	.29	.03
2. Just being outside	.34	.20	.79	.16	.42	.12
3. The smell and sound of the woods and field	.06	-.29	.79	-.10	.22	.25
4. Getting away from civilization	.17	.46	.68	.17	.08	.21
5. At least seeing some wildlife	.27	.43	.08	.07	.08	.09
6. Getting away from everyday problems	.30	.42	.14	.11	-.19	.07
7. Getting away from home	.31	.17	.26	.02	.67	.07
8. Seeing very few others	.38	.18	.30	.08	.63	.07
9. Being with my hunting companions	.37	.41	.08	.22	.37	.79
10. Seeing game fall as I shoot	.36	.15	.23	.65	.31	.09
11. Making a difficult shot	.47	.15	.43	.75	.27	.02
12. Outsmarting game	.41	.03	.18	.69	.30	.10
13. Stalking game	.45	.17	.29	.18	.12	.08
14. Being thought of as a skilled hunter	.60	.11	.09	.02	.36	.34
15. Bagging more game than hunters in other parties	.61	.13	.15	.12	.18	.29
16. Teaching someone else the skill of hunting	.47	.01	.03	.14	.31	.43
17. Showing game I bagged to family and friends	.70	.29	.18	.04	.09	.06
18. Bagging a very large animal or bird	.53	.03	.18	.25	.07	.27
19. Bring game home	.41	.18	.37	.03	.28	.22
20. Saving hides, horns, or feathers	.43	.35	.12	.01	.09	.28
21. Having the best of hunting equipment	.40	.56	.16	.18	.11	.16
22. Being a well-equipped hunter	.45	.68	.11	.27	.01	.11
23. Collecting guns	.46	.75	.45	.21	.03	.06
24. Cleaning and maintaining hunting equipment	.28	.41	.03	.49	.11	.19
25. Comparing my equipment with other hunters	.49	.61	.39	.05	.22	.04
26. Seeing hunters from other parties	.19	.42	.05	.39	.21	.63
Eigenvalues	5.69	3.10	2.11	1.87	1.25	1.11
Percent of Total Variance	21.9	11.8	8.1	7.2	4.8	4.3
Reliability	.79	.86	.80	.76	.63	.55

^a Items loadings high (>.50) on a factor are in bold-faced

어떻게 loading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varimax rotation에 의한 값과 각 인자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을 표시하였다 (Table 3).

인자 1은 '포획'에 관련된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체 variance중 21.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자 2는 전체 variance의 11.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비'에 관련된 항목들이 이 인자에 속해 있었다. 인자 3은 '자연'을 대표하는 인자로서 전체 variance중 8.1%를 차지하였고 인자 4는 '사냥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전체 variance의 7.2%를 차지하였다. 인자 5와 6은 전체 variance 중 각각 4.8%와 4.3%를 차지하였으며 각각 '탈피'와 '사회적 만남'에 관한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

었다.

3. 경험 수준 및 개인적 특성과 만족 요인

방법에서 언급된 대로 수렵인의 경험 수준이 3개의 변수 즉, 1 과거의 수렵 경력, 2 지난 수렵기간 중 수렵에 참여한 일 수, 그리고 3. 자기 평가에 의한 수렵 기술 수준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이 각각의 변수는 통계 분석상 편의를 위하여 상위집단, 중위집단, 그리고 하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Table 4). 본 연구에서는 경험 수준의 절대적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상대적인 백분율에 의해 경험 수준 집단이 분류되었고 본 연구의 목적 상 이 상대적 기준이 타당하다고 여

Table 4. Level of Experience by Categories of Experience

Experience Level ²	Experience Categories ¹		
	Year	Day	Level
Low	110 (36%)	89 (32%)	48 (16%)
Moderate	92 (30%)	99 (36%)	111 (37%)
High	102 (34%)	91 (33%)	145 (48%)

Note: ¹Year =Past hunting experience of years
 Day =Number of days participated in hunting during the last hunting season
 Level=Percieved hunting skill levels
²Low : Year=1-6 years; Day=1-14 days; Level=low
 Moderate : Year=7-12 years; Day=15-30 days; Level=moderate
 High : Year=13 or more years; Day=30 or more days; Level=high

겨졌다. 또한 각 인자의 만족 척도 점수도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분류되었다.

Table 5와 6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험 수준에 관련된 종속 변수들과 수렵인이 가진 개인적 특성 즉, 나이, 거주지, 그리고 교육 수준 등이 만족 척도의 각 인자 점수와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수렵 경험 수준과 관련된 3개의 변수 중 과거의 수렵 경력 년 수는 오직 '탈피'를 대표하는 '인자 5'와 통계적 유의 수준 0.05에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시 표현하면 수렵에 참여한 연수가 많은 수렵인 일수록 일상이나 업무 등으로부터 탈피함이 다른 어떠한 수렵의 요인보다 수렵 또는 휴양 경험에 큰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난 獵期 동안 수렵에 참여한 총 일 수는 6개의 인자 중 3개의 인자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들 인자에는 '포획'을 나타내는 인자 1, '장비'를 나타내는 인자 2, 그리고 '수렵 기술'을 나타내는 인자 4가 포함되었다. 특히 '수렵 기술'을 대표하는 인자와는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지난 수렵기간 중 수렵에 참여한 시간이 많은 수렵인 일수록 '포획'이나 '장비', 그리고 '수렵 기술'에 관련된 요인이 그들의 수렵 경험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수렵인 자신이 평가하는 자신의 수렵 기술 수준은 '수렵 기술'과 관련된 인자 4와 '사회적 접촉'에 관련된 인자 6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인자 6인 사회적 접촉에 관련된 인자와는 그 상관 관계가 높았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렵인의 개인적 특성들, 예를 들면 나이, 현 거주지, 그리고 교육 수준 등은 나이와 '수렵 기술'을 나타내는 인자 4와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아무런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Table 5. Correlation (Kendall's tau-b) between Experience and Each Factor of Multi-satisfaction Scores

Experience Categories	Harvest	Equipment	Nature	Skill	Escapism	Social Contact
Year	-.010	-.022	.033	.048	.118*	.022
Day	.128*	.164*	-.029	.170**	.006	.091
Level	.041	-.004	.104	.131*	.053	.156**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1 level (2 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2 tailed)

Table 6. Relationship (Pearson Chi-Square) between Hunters' Characteristics and Each Factor of Multi-satisfaction Scores

Hunters' Characteristics	Harvest	Equipment	Nature	Skill	Escapism	Social Contact
Age	7.11	11.99	8.69	14.43*	4.11	6.15
Place of Residence	7.88	7.48	16.92	9.51	5.36	5.46
Education	13.83	9.54	12.44	11.32	9.76	12.04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2 tailed)

고 찰

본 연구는 수렵인의 수렵 경험과 만족 요인을 조사하고 이 요인들이 수렵인의 수렵 경험 수준과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어떠한 인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전통적으로 수렵 경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믿어졌던 '포획량'은 그다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반면 '자연'과 관련된 요인들, 예를 들면 '자연과 가까이 있다는 것', '야외에 나간다는 것', 그리고 '산과 들에서 풍기는 냄새' 등과 같은 항목들은 수렵 경험과 만족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이와 같은 결과는 '포획량'이 수렵 만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과거의 연구 결과와는 (Heberlein과 Laybourne, 1978; Decker 등, 1980) 일치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자연에 관련된 인자들이 '포획량'이나 기타 다른 인자보다 수렵인의 만족이나 경험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수렵 및 야생 동물 관리에 있어서 야생 동물의 개체수와 같은 단면적인 관리 대안보다는 수렵 환경에 관련된 여러 측면의 자연적 편익이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렵만족 척도의 점수에 의한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렵 경험과 만족에 관여하는 인자는 '포획', '장비', '자연', '사냥기술', '탈피', 그리고 '사회적 만남' 등 6가지로 추출되었다. 이들 6개 인자와 수렵인의 수렵경험 수준에 관련된 3가지 변수 즉 '과거의 수렵참여 연수 (Year)', '지난 엽기 동안 수렵참여 일수 (Day)', 그리고 '자신이 평가하는 수렵기술 수준 (Level)'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Day' 변수가 3개의 인자 (포획, 장비, 그리고 사냥기술)와 'Level' 변수가 2개의 인자 (사냥 기술과 사회적 만남)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Year'의 변수가 1개의 인자 (탈피)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Table 5). 그러나 이들 6개의 인자들과 수렵인의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변수들 즉, 나이, 거주지 그리고 교육 수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렵인의 나이와 '사냥 기술'을 제외하고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수렵인의 경험 수준과 '탈피' 인자간의 상관을 Jackson과 Anderson (1985)이 보고한 미국의 사슴 수렵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들은 사슴 수렵인의 경력이 높으면 높을수

록 '탈피'에 관한 인자가 수렵 만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1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수렵인 집단에서 '탈피'에 관한 인자는 수렵 만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였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록 몇 가지 수렵 만족 인자가 수렵인의 경력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계수 자체를 살펴본 때 대부분이 0.2 이하이었으므로 (Table 5) 그렇게 강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상관 관계의 분석에서 언급하여야 할 사항은 아무리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만 두 변수간에 연관성 있는 관계만을 설명할 뿐이지 인과 관계의 해석은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Table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렵에 참여한 일수'와 '수렵인의 사냥 기술'이 연관 관계를 나타냈다 하더라도 수렵인의 수렵 참여 일수가 많기 때문에 수렵인의 사냥 기술이 높아졌다는 인과론적 결론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인 분석에서 추출된 6개의 인자들 서로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이들 인자들은 모두 연관성이 크며 내적 일치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인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인자 5'와 '인자 6'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두 인자는 비교적 낮은 신뢰도 (Cronbach's alpha=0.63과 0.55)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속하는 항목 역시 각각 2개뿐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수렵 경험과 만족에 관한 결과는 보다 많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휴양 만족의 인자가 수렵장의 구체적인 환경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는 등의 연구는 수렵장의 특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택한 수렵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만족 요인간의 차이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렵인들 간의 세분화가 불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수보다 수렵인의 특성을 보다 더 잘 표현하는 변수가 있으나 간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독립 변수를 찾는 노

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므로 성별에 따른 수렵 만족의 차이는 검증이 불가능하였다.

인 용 문 헌

1. 신원섭. 1995. 수렵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산림경제연구 3(1) : 45-52.
2. 최윤환·김성일. 1995. 수렵인의 자연 환경 태도와 수렵 참여 동기. 한국임학회지 84(1) : 1-9.
3. Bryan, H. 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 the case of trout fisherm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3) : 174-187.
4. Campbell, A., P.E. Converse and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 Sage Foundation, New York, NY.
5. Crissey, W.R. 1971. Some thoughts on wildlife research and management objectives. *Wildlife Society News No.* 134 : 27-28.
6. Decker, D.J., P.J. Brown and R.J. Gutierrez. 1980. Further insights into the multi-satisfactions approach for hunter management. *Wildlife Society Bulletin* 8(4) : 323-331.
7. Driver, B.L. and S.R. Tocher. 1970. Toward a behavioral interpretation of recreational engagements. In : B.L. Driver (ed.), *Elements of Outdoor Recreation Planning*. Univ. of Michigan Press, Ann Arbor.
8. Hammit, E.W., C.D. McDonald and M.E. Patterson. 1990. Determinants of multiple satisfaction for deer hunting. *Wildlife Society Bulletin* 18 : 331-337.
9. Hautaluoma, J. and P.J. Brown. 1979. Attributes of the deer hunting experience : a cluster analytic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0(4) : 271-287.
10. Hazel, K.L., D.E. Langenau and R.L. Levine. 1990. Dimensions of hunting satisfaction : multiple-satisfactions of wild turkey hunting. *Leisure Sciences* 12 : 383-393.
11. Hendee, J.C. 1974. A multiple-satisfactions approach to game management. *Wildlife Society Bulletin* 2(3) : 104-113.
12. Heberlein, T.A. and B. Laybourne. 1978. *The Wisconsin deer hunter*. Working paper 10. Madison, Wisconsin Center for Resource Policy Study and Program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WI.
13. Jackson, R.M. and R.K. Anderson. 1985. The deer hunting experience : its satisfactions and expectations. *Deer and Deer Hunting* 8(4) : 9-18.
14. Lucas, R.C. 1980. *Use patterns and visitor characteristics, attitudes and preference in nine wilderness and other roadless areas*. Research Paper INT-253. USDA Forest Service, Intermountain Research Station, Oregon, Utah.
15. Potter, D.R., J.C. Hendee and R.N. Clark. 1973. Hunting satisfaction : Games, gun, or nature? *Transactions of North American Wildlife and Natural Resources Conference* 38 : 220-229.
16. Shin, W.S. and R. Jaakson. 1997. Wilderness quality and visitors' wilderness attitudes : management implications. *Environmental Management* 21(2) : 225-232.
17. Vaske, J.J., A.F. Fedler and A.R. Graefe. 1986. Multiple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from a specific waterfowl hunting trip. *Leisure Sciences* 8(2) : 149-166.
18. Watson, A.E. and M.J. Niccolucci. 1992. Defining past-experience dimensions for wilderness recreation. *Leisure Sciences* 14 : 89-103.
19. Watson, A.E., J.W. Roggenbuck and D.R. Williams. 1991. The influence of past experience on wilderness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1) : 21-36.